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및 관련 변인 연구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of elderly couples
and the related variables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박사과정 박은아*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명예교수 이정우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 Park, Eun A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 Lee, Jeong Wo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uggest the efficient communication method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life in the elderly couples. For this study we considered variables connected with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of elderly couples.

We investigated 462 elderly men and women whose spouse is alive and Seoul and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of elderly couples was over than middle level so we could find that they communicate efficiently.
- 2)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of elderly couples differs significantly according to sex, education level, economic condition, health status, family type, social activity, sociotropy personality, self-esteem, internal-external controllability, marital intimacy,

* 연락처자: 박은아 (shea1212@hanmail.net)

relative comparison in the level of living.

3)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of elderly couples was dependently affected by intimacy, economic status, relationship; this variables had 40% explanation for communication efficiency.

Key Words : 노부부(elderly couples), 의사소통효율성(communication efficiency), 부부간 친밀감(marital intimacy)

I.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사망률의 감소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1999년 현재 남성의 평균수명은 71.7세, 여성은 79.2세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2). 이러한 노령층의 확대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가족주기상 노부부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남은 노후를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보람있게 지낼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부부는 은퇴로 인해 부부간 접촉이 증가하고 상호작용이 많아짐으로써 이전보다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가까워지면서 친밀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에 익숙하지 않거나 친밀감이 강요되면 오히려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김태현, 1994; 김경신·이선미, 2003; 이신숙, 1997; 임선영·김태현, 2002).

한편 부부는 경험과 관심을 서로 나누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해 가며 부부간의 상호존재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고(박민자, 1984; Noller & Fitzpatrick, 1990),

이에 따라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Lewis & Spanier, 1979; 김경신·김진희, 1998; 김경신·박은주, 1996).

노부부 역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갈등이 낮고(김경신·이선미, 2001; 김혜경, 1996; 전길양·임선영, 1998) 결혼 및 생활만족도도 높다(김혜경, 1996; 서병숙·김수현, 2000; 박지은, 2001). 그러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사소통은 감소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부부간 갈등이 증대하고 생활만족감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Komarovsky, 1964; 김태현, 1994).

따라서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노부부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결여되거나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노후 가정생활 및 삶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노년기 부부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상호간에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부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학 분야에서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노년기 부부관계, 부부갈등, 부부스트레스나 결혼만족도, 결혼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부부관계 변인의 한 하위변인으로 다루어 왔을 뿐이다(김경신·이선미, 2000, 2001; 이선미·김경신, 2002; 김혜경,

1996; 윤영, 1990; 임선영·김태현, 2002; 전길양·임선영, 1998). 이에 비해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몇 편(김선우, 2002; 김영나, 2001; 박지은, 2001; 이행욱, 2000)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부부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노년기를 함께 보내야 하는 노부부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형성·유지·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노부부의 결혼생활의 질, 나아가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봄으로써, 노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측면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앞으로의 노년기 부부의 상호작용 및 부부관계 연구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부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효율성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징적인 매개물을 사용하여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부부만족과 직결되고 부부간의 친밀성을 유지하며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oller & Fitzpatrick, 1990).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무엇(what)을 의사소통하는가 하는 의사소통의 내용 뿐만 아니라 어떻게(how)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가 하는 효율성의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하다(김진희·김경신, 1998).

Lewis와 Spanier(1979)는 부부관계에서 자신

에 대한 의사표현이 많을수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빈번할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정확할수록, 부부간의 이해가 깊을수록, 그리고 서로간의 감정이입이 많을수록 결혼생활의 질이 높다고 하면서 부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ienvenu(1970)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효과적·비효과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요소로 경청하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자신의 표현능력을, 비효과적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요소로 잔소리,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 등을 지적하였다. 또 부부간의 효과적 의사소통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시켜 주며 진심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였다. Olson 등(1983)도 효율적 의사소통은 숙련된 행동이며 학습되는 것으로, 부부 모두의 기술에 의존하는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다양성이 결여된 경우 다른 한 쪽의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Deacon 등(1981)도 부부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의 결혼 및 가정생활만족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의논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공평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윤성숙, 1996; 하상희·이정우, 1996; 홍보선, 1994),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김경숙, 1998; 이정우·강기연, 1998; 심혜선·이정우, 2001; 임희규, 1992; 조혜정, 1994)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Goldsmith, 199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Ballard-Reisch와 Weigel(1999)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도가 결혼의 질 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rginia 등(1997)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상호 양방향적이고 동등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부부 모두 높은 결혼만족을 보였다. 그러나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가정생활의 행복을 저해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김경신·김진희, 1998; 김화자·윤종희, 1991), 남편과 의사소통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부인의 경우 결혼 및 가정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Edward, 1999).

한편 노년기의 부부는 일상의 관심에서 자녀의 비중이 약해지며 은퇴로 인해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간 친밀감이 증폭되고(김태현, 1994),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에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진데다가 노년기 이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갈등이 다시 표출되면서 관계가 악화되거나(Atchley, 1994), 또는 빈약한 수준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자원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배우자와 협동하는 과정에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마찰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노년기에는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의해 의사소통에 더 신중을 기하며(Botwinick, 1973),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더 꺼려하고, 상대방에게 대답해 주거나 반응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Ryan, Kwang See, Meneer & Trovate, 1994; Tamir, 1979). 그리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기도 하며, 적절한 질문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등 의사소통의 장애와 직면하기도 한다(Feier & Gerstman, 1980; Tamir, 1979).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감소하게 되고 의사소통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의사소통 문

제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노부부간 갈등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길양, 1999).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부 유별(夫婦有別), 여필종부(女必從夫) 등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부부간 권위구조가 상당히 유지되어 오면서 부부관계가 분리되고 구별되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경향이 드물다. 더욱이 여자노인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는 경향(임정민 외, 1995)이 많아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기술 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므로 노부부간에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다. 즉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노부부들의 경우 갈등의 정도가 더 낮고 결혼 및 생활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이선미, 2001; 김혜경, 1996; 이영자, 1999; Atchley, 1992).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부부의 의사소통과 배우자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박지은(2001)의 연구에서 배우자와 대화시 서로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며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노년기의 원만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며, 또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나(2001)는 의사소통을 의사소통효율성, 대화정도, 대화시간의 세 측면으로 구분한 후,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부간의 충분한 자기표현과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노년기의 생활 적용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김선우(2002)는 상호건설·상호회피·요구·철수·손상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여 남녀노인의 부

부 상호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 상호간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배우자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은 노년기 결혼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Atchley, 1992), 노년기 부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상호작용과 역동성은 노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연구자나 연구영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는데 국내의 연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다. 우선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유형화(회유·비난·계산·산만·설득·회피·억제·의견·친숙형·권위·상호존중·무관심·타인지향·불성실형 등)하여 부부 의사소통을 분석하였다 (김인숙, 1988; 송성자, 1985; 원효중, 1985; 유점숙, 1994; 이정순, 1991; 이창숙, 1987). 또한 의사소통을 상황, 태도, 성격 영역으로 구분하거나(송말희·이정우, 1986; 유주희·이정우, 1993), 또는 대화빈도, 일치도, 친밀도 영역으로 구성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윤성숙, 1997; 이정순, 1982; 하상희·이정우, 1996). 그리고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의사소통효율성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강희정, 1995; 김화자·윤종희, 1991; 김경신·김진희, 1998; 김정옥, 1987; 박민숙, 1985; 심혜선·이정우, 2001; 조혜정, 1983; 홍보선, 1994).

또한 노인의 의사소통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영나(2001)는 의사소통효율성, 대

화정도, 대화시간을 측정하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분석하였다. 박지은(2001)은 양적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행위상의 공유, 대화활동, 부부간 갈등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김선우(2002)는 상호건설적, 상호회피,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여 남녀노인의 부부 상호간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의사소통을 조사한 연구들은 그 수가 단편적이면서도 연구자의 연구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각기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측정하고 있어 공통된 측정내용이나 방법을 추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의사소통효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부부가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포함시켜 의사소통효율성을 단일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부의 결혼 또는 가정생활의 만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부부간의 상징적 교류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 생각, 의견 등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Bienvenu, 1970; 강희정, 1995; 김경신·김진희, 1998; 김영나, 2001; 심혜선·이정우, 2001; 조혜정, 1983; 홍보선, 1994). 또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듣고 말하는 태도가 성의있고 예의바르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한다(김영나, 2001). 그리고 호혜적이고 행복한 부부는 부부 상호간에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회를 충분히 많이 갖고, 상호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Hicks & Platt, 1970; Narvan, 1967). 특히 노부부의 경우 대화정도가 중요하여 부부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의사소통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김영나, 2001).

이를 통해 볼 때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자주 이루어지며, 또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두 사람이 상호 조화와 일치를 이룰 경우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더욱 효율적이 되며 이와 함께 부부관계도 보다 호혜적이고 행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의사소통효율성의 주 내용인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개방도) 하는 내용과 함께 어느 정도 충분히 자주 이루어지는가(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상호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가(일치도) 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의사소통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의사소통효율성을 정도, 일치도, 개방도로 구분하여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변인고찰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부부와 관련된 의사소통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효율성을 조사한 연구들을 포함시켜 고찰해 본 후에 이를 본 연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대화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김영나, 2001). 그리고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여자 노인은 부정적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는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또한 남자노인이 더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전반적 의사소통 만족도도 높았고, 남자노인이 건강문제 등 보다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이는 반면 여자노인은 자녀 및 집안문제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박지은, 2001).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60대 노인이 70대 이상 노인보다 대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나, 2001). 그리고 연령이 높은 남자노인이 부정적 의사소통유형인 요구-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 여자노인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선우, 2002). 또한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효율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배우자의 연령이 50·60대인 경우가 70대 이상인 경우보다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대화정도와 대화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영나, 2001). 박지은(2001)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쌍방적 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의사소통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모두 높은 노인들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화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영나, 2001).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남자노인들에게서 손상적 의사소통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노인들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선우, 2002). 또한 학력이 높은 노인은 부부간에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박지은, 2001),

권위적이고 강압적 의사소통을 지양하는 대신 서로 능동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 부부갈등도 적었다(전길양·임선영, 1998).

경제상태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을 살펴보면, 자신의 경제적 상태가 여유 없고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남자노인이 부정적인 상호회피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선우, 2002). 박지은(2001)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이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었다.

건강상태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을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노부부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 및 대화정도도 높을 뿐 아니라 대화시간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의사소통효율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대화정도와 대화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영나, 2001). 또한 박지은(2001)의 연구에서도 건강이 좋은 노인이 부부간에 쌍방향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에 따른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정도, 대화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영나, 2001). 그리고 남자노인의 의사소통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노인의 경우 노부부만 살거나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에 다른 자녀나 그 밖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손상적 의사소통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직업유무에 따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정도, 대화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나, 2001). 그리고 여자노인의 경우 의사소통은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이 있는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직업이 없는 남자노인은 부정적 유형인 상호회피, 요구-철수, 손상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노년기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생활의 만족감과 사기를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서병숙·김수현, 2000)를 볼 때 노인의 직업유무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종교유무에 따른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은 종교가 있는 노부부가 종교가 없는 노부부 보다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대화정도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화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김영나, 2001). 그리고 종교가 있는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 종교가 없는 남자노인은 부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또한 종교가 일치하는 노부부간에 쌍방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박지은, 2001).

사회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의 행복감은 사회활동을 통해 증대된다는 결과(윤현희·김명자, 1994)를 볼 때,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성격특성 중 하나인 관계지향성에 따른 노인의 의사소통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그러나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이 친밀성을 추구하려고 하고(Beck, 1983; 배정희, 1996 재인용), 관계지향성이 높은 개인이 요구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승락, 1998). 이를 볼 때, 노인의 관계지향

적 성격과 의사소통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효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주부의 대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하상희·이정우, 1996)를 고려하여 본 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부부 각자의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이경희, 1998; 조유리, 2000),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사소통을 살펴본 결과, 남녀노인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부정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노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내외통제성과 의사소통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노인의 내적통제성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고(박은숙 등, 1998; Myers & Booth, 1999), 내적통제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수현·서병숙, 2000)를 고려해 볼 때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노인의 친밀감과 의사소통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기 부부일수록 관계에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신·이선미, 2001),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김경신·이선미, 2002). 그러므로 이를 볼 때 친밀감은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인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노인을 대상으로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과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의 경제상태와

의사소통과의 관련성, 그리고 자신의 가정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주부일수록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심혜선·이정우, 2001)에 비추어 볼 때 생활수준 비교감과의 관련성도 예측되므로 이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을 살펴본 문헌은 다수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을 살펴본 문헌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들을 포괄하여 의사소통효율성을 조사한 연구는 더더욱 그 수가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고찰해 본 다양한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들이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경도, 일지도, 개방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은 배경(사회인구학적·심리적)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노인의 의사소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형태, 직업유무, 종교유무, 사회활동참여여부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2) 심리적 변인

관계지향성과 관련하여서는 Robin 등(1994)의 Personal Style Inventory(PSI II)를 변안한 양정윤(1999)의 설문을 기초로 관계지향적 성격에 해당하는 6문항($\alpha=.56$)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서는 Rosenberg(1972)의 연구를 기초로 한 이경희(1998), 김선우(2002)의 설문을 기초로 총 8문항($\alpha=.77$)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점수를 주어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에 관한 척도는 DeMaris와 Longmore(1996),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한 강기연(2000)의 설문을 토대로 재구성한 총 7문항($\alpha=.78$)의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내외통제성과 관련하여서는 P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I-E) 척도를 참고로 한 선행연구(김은정, 1993; 김혜정·이기영, 1997; 유을용, 2002)를 토대로 9문항($\alpha=.70$)을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서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점수를 주어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친밀감에 관련하여서는 Broucke 등(1995), Descutner와 Thelen(1991) 등의 척도를 기초로 한 이경희(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부간의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10문항($\alpha=.87$)으로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 척도는 Davis(1981), Dillard(1987)의 연구를 토대로 박미금(1993)이 작성한 2문항($\alpha=.89$)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의사소통효율성

선행연구(김은숙, 1983; 김영나, 2001; 심혜선·이정우, 2001; 하상희·이정우, 1996; Bienvenu, 1970; Powers와 Hutchinson, 1979 등)를 토대로 의사소통효율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총 26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세 개의 요인, 즉 의사소통 정도 7문항($\alpha=.84$), 의사소통 일치도 8문항($\alpha=.86$), 의사소통 개방도 10문항($\alpha=.89$)을 추출하여, 의사소통효율성은 총 25문항($\alpha=.94$)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 일치도,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곧 부부간의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로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남녀 노인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을 60세 이상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남녀 노인으로 제한한 것은 많은 연구에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관점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별로 홀로된 노인은 가정생활에서의 부부간 상호작용을 조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에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 앞서 2003년 2월 17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남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4월 7일부터 5월 16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강남구, 동작구, 은평구),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성남시(분당구), 인천시(계양구, 동구)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자와 본 조사의 취지와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조사요원들이 노인정, 종교기관, 공원, 개별 가정 등을 방문해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고, 자기 기입이 가능한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를 완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기재가 불충분한 18부를 제외한 총 462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 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F-test,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다회귀분석 가운데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와 VIF지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사회인구학적·심리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62)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인	성별	남	231	50.0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인	건강 상태	건강함	236	51.1
		여	231	50.0			보통임	129	27.9
	연령	60-64세	197	42.6			건강하지 않음	97	21.0
		65-69세	141	30.5		가족 형태	부부가족	262	56.7
		70세 이상	124	26.8			자녀동거가족	200	43.3
	학력	초등졸 이하	61	13.2		직업 유무	유	163	35.3
		중졸	111	24.0			무	299	64.7
		고졸	180	39.0		종교 유무	유	331	71.6
		대졸 이상	110	23.8			무	131	28.4
	경제 상태	일체 자녀 도움 받음	33	7.1		사회활동 참여여부	유	420	90.9
		일부 자녀 도움 받음	138	29.9			무	42	9.1
		자립 가능함	267	57.8					
자녀들을 도와줌		24	5.2						
변인			평균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심 리 적 변 인	관계지향성		3.24	.50	심 리 적 변 인	내외통제성		3.45	.47
	자아존중감		3.42	.55		친밀감		3.32	.62
	성역할태도		3.04	.65		상대적생활수준비교감		2.93	.80

2.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의 일반적 경향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은 <표 2>에서와 같이 5점 만점에 3.33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노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위영역(정도, 일치도, 개방도)에서도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정도, 개방도, 일치도 순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 대부분이 중간 수준 이상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영나(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2>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의사소통효율성	평균	표준편차
정도	3.42	.68
일치도	3.23	.65
개방도	3.35	.68
전체	3.33	.60

3.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표 3>에서 보듯이 성별,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형태, 사회활동참여여부, 관계지향성,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친밀감,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의사소통효율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며(김선우, 2002),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성향을 갖고 있고, 전반적 의사소통 만족도도 높다(박지은, 2001)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일치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부부간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 정도가 높고(김영나, 2001),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박지은, 2001), 능동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 부부갈등도 적다(전길양·임선영, 1998)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학력이 높은 개인은 교육과정을 통해 관계나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 자원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를 부부관계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부부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위영역에서도 의사소통 정도, 일치도, 개방도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이 부부간에 상호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생각이나 의견의 일치도 잘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상태에 따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은 생존해있을 때까지 자립이 가능하거나 자녀들의 생활에도 도움을 줄 정도로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활비의 일부 또는 일체를 도움받고 있는 경제상태가 낮은 노인들보다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경제상태가 낮다고 생각하는 남자노인들이 부정적 상호회피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김선우, 2002),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이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눈다(박지은, 2001)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자녀로부터 생활비의 일부 또는 일체를 보조받아야 할 정

도로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부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한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된다. 하위영역에 있어서도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노인이 부부 상호간에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생각이나 의견의 일치도 잘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은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은 노부부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 및 대화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화시간도 충분하고(김영나, 2001), 쌍방적 대화를 더 많이 한다(박지은, 2001)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건강은 개인의 행동방향이나 정도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자원으로 특히 노년기에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모든 생활에서 행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예상된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일치도, 개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건강한 노인이 배우자와 의견 일치도 잘 이루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을 보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부부끼리만 단독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부부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형태에 따른 의사소통효율성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김영나, 2001; 박지은, 2001)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

는 것이다. 단독가구 노부부의 경우 제반문제에 대해 부부가 자주 그리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서, 상호 의견의 일치도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영역에서도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노부부가 의사소통을 빈번하게 하며, 개방적인 상황에서 상호 의견일치도 잘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부부간의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노화과정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태현, 1994).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나 신체적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노인의 행복감은 사회활동을 통해 증대되므로(윤현희·김명자, 1994),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부부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의사소통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정도, 개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자주, 또 개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지향성 성격이 강할수록 노인들은 부부간에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이 친밀감을 더 추구하고(Beck, 1983), 요구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임승락, 1998)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부부간에 개방적 분위기에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의 일치도 잘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효율성이 높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변인	구분	의사소통효율성			
		정도	일치도	개방도	전체
성별	남	3.46	3.31	3.41	3.39
	여	3.38	3.15	3.29	3.27
	T	1.24	2.55*	1.91	2.14*
연령	60-64세	3.46 A	3.18	3.37	3.33
	65-69세	3.49 A	3.32	3.35	3.38
	70세 이상	3.27 B	3.22	3.30	3.27
	F	4.02*	1.97	.45	1.20
학력	초등졸 이하	3.23 B	3.07 B	3.14 B	3.14 B
	중졸	3.19 B	3.06 B	3.20 B	3.15 B
	고졸	3.49 A	3.28 A	3.41 A	3.39 A
	대졸 이상	3.63 A	3.41 A	3.49 A	3.50 A
	F	10.67***	7.28***	5.84**	9.37***
경제상태	전부 자녀도움 받음	2.91 C	2.78 C	2.79 C	2.82 C
	일부 자녀도움 받음	3.22 B	3.12 B	3.21 B	3.18 B
	자립 가능함	3.55 A	3.33 AB	3.46 AB	3.45 A
	일부 자녀도움 줌	3.69 A	3.44 A	3.55 A	3.55 A
	F	16.24***	9.97***	13.77***	16.58***
건강상태	건강하다	3.49	3.36 A	3.48 A	3.44 A
	보통이다	3.33	3.11 B	3.19 B	3.20 B
	건강하지 않다	3.36	3.08 B	3.23 B	3.22 B
	F	2.80	9.49***	9.83***	9.04***
가족형태	부부가족	3.51	3.30	3.42	3.41
	자녀동거가족	3.29	3.14	3.25	3.23
	T	3.45**	2.57*	2.62**	3.17**
직업유무	있다	3.42	3.25	3.37	3.35
	없다	3.41	3.22	3.33	3.32
	T	.16	.39	.61	.46
종교유무	있다	3.44	3.25	3.37	3.35
	없다	3.36	3.18	3.27	3.27
	T	1.24	1.14	1.56	1.57
사회활동참여유무	있다	3.44	3.25	3.37	3.35
	없다	3.15	3.06	3.10	3.10
	T	2.65**	1.86	2.68*	2.64*
관계지향성	상	3.62 A	3.39 A	3.49 A	3.49 A
	중	3.39 B	3.20 B	3.33 B	3.31 B
	하	3.15 C	3.05 C	3.14 C	3.12 C
	F	16.59***	9.23***	8.96***	13.75***
자아존중감	상	3.76 A	3.43 A	3.62 A	3.60 A
	중	3.36 B	3.20 B	3.33 B	3.30 B
	하	3.17 C	3.07 B	3.10 C	3.11 C
	F	30.69***	11.31***	22.18***	25.71***
성역할태도	상	3.44	3.23	3.34	3.33
	중	3.39	3.27	3.34	3.33
	하	3.43	3.18	3.35	3.32
	F	.24	.73	.02	.02
내외통제성	상	3.63 A	3.39 A	3.55 A	3.52 A
	중	3.47 B	3.25 A	3.35 B	3.35 B
	하	3.14 C	3.05 B	3.14 C	3.11 C
	F	20.90***	9.92***	13.41***	17.73***
친밀감	상	3.79 A	3.57 A	3.80 A	3.72 A
	중	3.42 B	3.27 B	3.37 B	3.35 B
	하	3.06 C	2.87 C	2.89 C	2.93 C
	F	52.14***	52.83***	92.58***	88.88***
상대적생활수준비교감	상	3.57 A	3.37 A	3.45 A	3.46 A
	중	3.41 B	3.25 AB	3.37 AB	3.34 AB
	하	3.31 B	3.10 B	3.24 B	3.21 B
	F	4.69*	5.61**	3.38*	5.38**

*p<.05 **p<.01 ***p<.001

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노인은 부정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김선우, 2002)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하며(이경희, 1998),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자신감을 가질 때 부부갈등이 낮음(김혜경, 1996; 윤영, 1990; 전길양·임선양, 1998)을 볼 때, 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개념을 갖는 것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세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부 상호간 의사소통이 많고, 배우자와 생각이나 의견 일치가 잘 되며, 솔직하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내적통제성 수준은 노년기 부부로 하여금 변화된 결혼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적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적고(박은숙 등, 1998; Myers & Booth, 1999), 결혼만족도도 높다(김수현·서병숙, 2000)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하위영역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내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노부부간 의사소통이 빈번하고, 일치를 잘 이루며, 개방적임을 보여준다.

부부의 친밀감이 강할수록 노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 친밀한 부부일수록 관계에 생동감이 있을 뿐 아니라 갈등 정도가 낮고(김경신·이선미, 2001), 생활만족도도 높다(이선미·김경신, 2002)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부부가 친밀할 경우 갈등도 적고 생활에도 만족하게 되어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을 보면, 주변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지하는 노인들이,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노인들보다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불화요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정생활과 관련된 문제임을 감안할 때, 타인과 비교하여 생활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노인의 감정상태는 직접적으로는 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서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된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된다. 하위영역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타인보다 자신의 생활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노인이 부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며,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차이검증에서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만을 추출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간 친밀감, 경제상태, 관계지향성이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40%였다<표 4>. 즉 노부부간에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자립이 가능할 만큼 경제상태가 여유로울수록, 그리고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부부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친밀감은 부부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Moss & Schwebel, 1993)이며 두 사람의 상호 인정과 지지, 인지·감정·행동의 상호공유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친밀감이 높은 부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간에 공유

<표 4>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의사소통효율성							
				정도		일치도		개방도		전체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변인	성별	-		-		-		-			
	연령	-		-		-		-			
	학력	-		-		-		-			
	경제상태	일체도움받음	-		-		-		-		
		자립가능함	.22	.16*	-		.12	.09*	.14	.11*	
		자녀도움줌	-		-		-		-		
	건강상태	-		-		-		-			
	가족형태	-		-		-		-			
사회활동참여유무	-		-		-		-				
심리적변인	관계지향성	.22	.16*	-		-		.11	.08*		
	자아존중감	.16	.14*	-		-		-			
	내외통제성	-		-		-		-			
	친밀감	.40	.36***	.58	.55***	.67	.60***	.57	.58***		
	상대적생활수준비교감	-		-		-		-			
상수		.74		1.33		1.07		1.03			
R ²		.30		.30		.39		.40			
F 및 유의도		36.79***		147.97***		108.89***		78.01***			

*p<.05 **p<.01 ***p<.001

*성별:	기준집단(여)	비교집단(남)
경제상태:	기준집단(일부도움받음)	비교집단(일체도움받음, 자립가능, 자녀도움줌)
가족형태:	기준집단(자녀동거가족)	비교집단(부부단독가족)
직업유무:	기준집단(있다)	비교집단(없다)
종교유무:	기준집단(없다)	비교집단(있다)
사회활동참여유무:	기준집단(없다)	비교집단(있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노부부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자립이 가능한 경제상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위치와 상황에 있는 경우이므로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부부간 의사소통도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은 개인의 성격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다

른 사람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노인은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의사소통에 임하기 때문에 부부간 의사소통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한편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노부부의 의사소통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밀감,

관계지향성, 경제상태,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부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의 경제상태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자립이 가능할수록, 노인의 성격특성이 관계지향적일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정도가 높았다. 의사소통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밀감으로 나타나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노부부의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 개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밀감,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의 경제상태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자립이 가능할수록 노부부의 의사소통 개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부부간의 친밀감은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전체와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인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부부간 친밀감이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부부간에 친밀하고 긴 대화를 가질수록 서로 가까워지는 반면에 한정되고 짧은 대화만을 갖는다면 부부간의 친밀감은 약화되며(Hawkins, 1979), 아울러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 때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Bienvenu, 1970)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부부가 배우자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보완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한다면 가정생활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은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적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한 의사소통 정도, 개방도, 일치도 순으로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은 배경변인 가운데 성별,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형태, 관계지향성,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친밀감,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정도의 경우 연령, 학력, 경제상태, 가족형태, 사회활동참여여부, 관계지향성,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친밀감,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소통 일치도의 경우 성별,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형태, 관계지향성,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친밀감,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 개방도의 경우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형태, 사회활동참여여부, 관계지향성,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친밀감,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은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의 경제상태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자립이 가능할수록, 그리고 관계지향적 성격 특성이 강할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들 세 변인은 4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친밀감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자립이 가능할수록, 관계지향적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 일치도의 경우 친밀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개방도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의 경제상태가 생존해있을 때까지 자립이 가능할수록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부부간의 친밀감은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곧 부부가 서로 인정해 주고 지지해주며 감정과 행동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화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바꾸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친밀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상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과 함께 의사소통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친밀감 촉진 방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부부 각자 배우자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존중하는 마음 자세로 부단히 노력할 때 부부간의 친밀감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의사소통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은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노년기 부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의사소통 증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 가정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사소통 효율성 증진 교육프로그램들은 노년기를 맞이하기 이전에 신혼기때부터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받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더욱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노년기의 안정된 경제상태가 의사소

통효율성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볼 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노인 문제의 가장 큰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경제적인 힘의 약화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은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노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만족스런 노후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생활의 안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젊은 시절부터 적절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하겠다. 아울러 개인적인 노후대책 마련과 함께 많은 노인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의 유명무실한 노인 복지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길어진 노후생활을 자립적이며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에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관계지향적 성격 특성이 강한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의무와 책임감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전통적 사회와 달리 부부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은 노부부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노인일수록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은 더욱 배우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상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노인의 관계지향적 성격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노년기 역할 상실, 사회적 접촉 감소와 고립 등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 줌으로써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

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을 과감히 개선하려는 노인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노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앞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노부부의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논의된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보다 실제적으로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부부가 길어진 노후 생활을 더욱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일방적 응답을 토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효율성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부부 의사소통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상호작용과정이므로 앞으로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부를 쌍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부와 따로 생활하는 단독가구 노부부를 구분하지 않고 의사소통효율성을 조사했는데, 단독가구 노부부와 자녀 동거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에서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부부 이외의 다른 의사소통 통로가 있는 가정환경과 없는 가정환경에서의 부부 의사소통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단독가구 노부부와 자녀 동거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신·이선미(2000).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9. 89-106.
- 2) 김경신·이선미(2001).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0. 31-54.
- 3) 김경신·이선미(2003).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1). 139-153.
- 4) 김영나(2001).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5) 김진희·김경신(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6(8). 63-75.
- 6)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교문사
- 7) 김태현·전길양(1998).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167-182.
- 8)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9)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10)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1) 서병숙·김수현(200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1). 55-67.
- 12) 송말희·이정우(1986). 도시 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33-47.
- 13) 심혜선·이정우(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29-145.
- 14) 양정윤(1999).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과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

- 향: 성격·사건 일치기설과 증상 특정성기설.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15) 유점숙(1994). 부부 의사소통 특성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16) 유주희·이정우(1993). 한국 도시부부의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한국학연구. 3. 199-242.
- 17) 윤성숙(1997).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참여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윤영(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19)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0)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21) 이선미·김경신(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22) 이신숙(1997).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70-84.
- 23)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4) 이정우·강기연(2000). 도시주부의 공평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합산적/총체적 측정방법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8(5). 41-54.
- 25) 이정우·박혜경(1992). 부부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7. 3-23.
- 26) 이정우·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 27) 이행옥(2000).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과 중재방안. 원주대학 학술논총. 32. 17-29.
- 28) 임승락(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만족·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29) 임선영·김태현(2002). 노년기 부부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6.
- 30) 전길양·임선영(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6). 1-12.
- 31) 통계청(2002). 2002 장래가구추계결과.
- 32) 하상희·이정우(1996).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참여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1. 23-46.
- 33) 홍보선(1994).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의사결정유형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34) Allen, K., Blieszner, R., & Roberto, K.(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11-926.
- 35) Bureson, B. R., & Denton, W. H.(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Some moderation effect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Nov). 884-902.
- 36) Chipperfield, J.G., & Havens, B.(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Transi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J of Gerontology. B. Psychology. Sci. Soc. Sci. 56. 176-186.
- 37) Duvall, E. M., & Miller, B. C.(1985). Marriage and the family development. 6th ed New York. Harper & Row.
- 38) Feier, C. D., & Gerstman, L. J.(1980). Sentence comprehension abilities throughout the adult life span. Journal of Gerontology. 35. 722-728.

- 39) Gottman, J. M., & Krokoff, L. J.(1989).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view.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40) Hayes, M. P., & Sti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41) Lee. G. R.(1988). Marital intimacy among older person. *J of Family Issue*. 9(2). 273-284.
- 42) Martin, P., & Silvia, S.(2001).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A Meta-Analysis. *J of Gerontology. B. Psychology. Sci. Soc. Sci*. 56. 195-213.
- 43) Noller, P., & Fitzpatrick, M. A.(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32-843.
- 44) Tamir, L. M.(1979). *Communication and the aging process: Interac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New York: Pergamon
- 45) Tower, R.B., & Kasl, S.V.(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s. *J of Gerontology. B. Psychology. Sci. Soc. Sci*. 51. 115-129.
- 46) Townsend, A. L., & Franks, M.(1997).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spouses : Influence on spouse caregivers' subjective effectiveness. *Family Relations*. 46. 33-39.